

몬테소리教育에서 兒童의  
正常化過程에 관한 考察  
A Study on the Process of Normalizing Children  
in Montessori's Education

황 옥 자 \*  
Hwaug, Ok Ja

ABSTRACT

In this article we reviewed the phenomena and processes of normalizing children through documentary records with interest in the aim of Montessori's education methods. The Montessori education method is based on the theory that all children should be respected and their works prized. The normalization of children does not mean only to turn abnormal children into normal ones, but to make normal characteristics - calmness, self-confidence, happiness or patience, etc. - which are latent in themselves, appear on the surface and remold them as new children.

To achieve normalization some prerequisites are necessary. They are as follows: 1) The principle of freedom. The freedom in Montessori's education has some limits in prepared environments suitable for developing children as whole persons through their spontaneous activities. 2) Development of the phenomenon of children's attention. Arousal of their attention in the children's primitive inner impulse and sense of spiritual hunger. To satisfy their hunger children divert their interest to certain objects and come to repeated exercise of intelligence. 3) Concentration and repetitive phenomena. Repetition through children's concentration phenomenon is a natural and important fundamental behavior which controls their mental power. Repetitive behavior will form serious discipline and promote development of their intelligence.

I. 序 論

教育은 「人間行動의 計劃的 變化」<sup>1)</sup>라 定義되고 있다.  
오늘날 教育學者들은 早期에 이러한 可能性을 부여하고, 人間の 能力을 開發하기 위해 研究하고 있다.

---

\* 전주우석대학 아동복지과 전임강사

註 1) 愼錫日, 教育심리학, (서울: 載東文化社, 1971), p. 13.

몬테소리(Maria Montessori)도 兒童들의 早期의 可能性을 충분히 認知하고 이에 알맞는 教育體系를 세웠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몬테소리가 지향한 것은 早期開發이나 知識探求라는 手段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더욱 넓고 깊은 人格全體의 圓熟<sup>2)</sup>을 강조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몬테소리는 「몬테소리法」의 서두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sup>3)</sup>

“...教育이란 各個人이 自發적으로 遂行하는 自然스러운 과정이며, 교사의 말을 듣는데서가 아니라 주위의 環境을 體驗하는 데서 習得하게 되는 것이다...”

몬테소리 教育은 兒童을 尊重하고 兒童의 作業을 重要視하는 思想에 구원을 두고 있으며, 아동의 個人差를 認定하고 個別指導할 것에<sup>4)</sup> 강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點들이 몬테소리의 獨特한 教育理論과 方法, 이에 알맞는 教具使用을 낳게한 것이다.

한때 몬테소리 教育은 進歩主義教育에 基礎한 幼兒教育者들에게 많은 批判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Kilpatrick(1914)에 의해 提示된 批判<sup>5)</sup>은 몬테소리 教育의 發展에 많은 저지를 가했다.

몬테소리 理論이 1960년대 후반부터는 세계적으로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했으며 幼兒教育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는 早期教育 및 知的發達이 강조됨에 따라 Piaget의 理論<sup>6)</sup>과 더불어 Montessori 教育理論이 이에 호응하는 教育方法이라고 看做된 結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몬테소리 教育이 導入된지 약 10여년이 되며 많은 關心속에 成長하고 있다.

이와같은 關心이 고조되는 가운데 本稿는 몬테소리 教育이 지향하는 正常化 過程에 關心을 가지고, 이들 理論에 대한 올바른 認識을 통하여 理解하므로써 아동들이 正常化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資料를 提供하는데 目的이 있다.

아동이 正常化를 이루는데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問題가 提起될 수 있다.

첫째로, 兒童의 正常化過程에서 必須적으로 完成되어야 하는 原則은 무엇인가?

둘째로, 이러한 基本이 되는 原則들이 있다면 兒童과의 相互作用을 통하여 어떻게 正常化를 이루는가?

세째로, 正常化한 兒童의 特性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와같은 問題의 內容을 가지고 本稿는 관계있는 文獻을 中心으로 考察하고자 하는데, 充分한 文獻蒐集에 難點이 있어 資料에 制限點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 II. 몬테소리 教育의 本質

### 正常化의 概念

몬테소리의 教育目的은 兒童의 全人的인 發達을 도와주고 正常化(normalization)를 이루는데 있다.<sup>7)</sup>

註2) 김한선, 몬테소리교육(이론편), (서울;보육사, 1979), p.10

3) 上揭書, p.3

4) 박리라외 6人, 윤현몬테소리교육과정, (서울;예쁜뽀뽀사 1984), p.14

5) W.H.Kilpatrick, The Montessori System Examined.(Boston: Houghton Mifflin Co.,1914)

6) 이기숙, 幼兒教育課程(서울;敎文社, 1982) p.19

7) Bernard Spodek, Early Childhood Education(New Jersey:Prentice-Hall, Inc.,1973) p.49

흔히 正常化란 「非正常兒를 正常兒」<sup>8)</sup>로 變化시키는 것이라고 잘못 혼돈하여 使用하기 쉽다. 그러나 몬테소리가 意味하는 正常化는 「새로운 兒童」이라는 次元에서 理解하는 것이 아동을 正確하게 案内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正常化라는 낱말이 우리말 사전에서는 “正常的인 것이 아닌것을 正常的인 것으로 되거나 되게 함” “바로잡힘”<sup>9)</sup>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몬테소리 敎育에서의 “正常化”란 좀 더 깊은 意味를 갖는데 이는 準備된 環境속에서 兒童이 滿足하고, 幸福하게 되도록 案内하는 것이다. 즉 兒童이 正常化 되어가며 어린이답게되어 幸福함을<sup>10)</sup> 意味한다. 그리하여 非正常的인 特徵은 사라지고 아동의 內面에 潛在하여 있던 正常的인 性質이 나타나서 새로운 타입의 아동이 表面化되는 것이다.<sup>11)</sup>

그리하여 兒童은 非自律的 行動에서 發展的 行動으로, 無規律的 行動에서 規律的 行動으로, 非組織的 行動에서 組織的 行動으로 問題行動이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sup>12)</sup>

그러면은 왜 非正常的인 特質이 兒童에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疑問을 提起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몬테소리는 아동의 非正常的인 性質의 外的表現은 生命이 억압되어 成長期의 강렬한 에네르지가 그 제도에서 벗어나 흩어져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現象을 逸脫現象(deviation phenomenon)이라고 한다. 그리고 逸脫現象은 아동으로 하여금 非正常的인 行동을 誘發시키는 原因이 된다. 그래서 이를 正常化시키려면 逸脫한 에네르지를 본래의 制度에 되돌리는 것이라고 한다.<sup>13)</sup>

물론 일탈한 에네르지를 原狀으로 復舊시키기 위해서는 몬테소리가 重要視하는 準備된 環境과 自由가 있는 상태에서 作業에 熱中할 수 있는 주의깊은 배려가 必要하며, 이를 保護하고 案内할 수 있는 環境 造成者로서 敎師의 役割이 구비되어야 한다.

몬테소리는 正常化라는 말을 人間에게 使用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用하는 데는 다음 3가지 條件을 충족시킬 수 있는 客觀적 事象을 지닐 때라고 했다.<sup>14)</sup>

그 첫째조건은 本質적으로 正常狀態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正常이 아닌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둘째는 그 正常性의 普遍的인 기준이나 規範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正常化는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本性의 本質的인 方向, 法則에 따라 內面的인 可能性이 추구될 때에만 實現되므로 그것을 추구하는 客觀的 方法이 存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條件을 만족시키는 客觀적 事象을 兒童이 갖게될 때 性格의 결합과 그밖의 다른 特性들은 사라지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正常的인 性質이 나타나는 “새로운 어린이”(The New Child-er.)가 되는 것이다.<sup>15)</sup>

註 8) 박리라外 6人, 運현몬테소리敎育課程, (예쁜튼튼사, 1984), p.15.

9) 신기철, 신용철 편저, 새우리말큰사전, (서울:삼성출판사, 1978), p.2954.

10) 박리라外 6人, 前揭書

11) 김한선, 몬테소리敎育(理論編), 보육사, 1977, p.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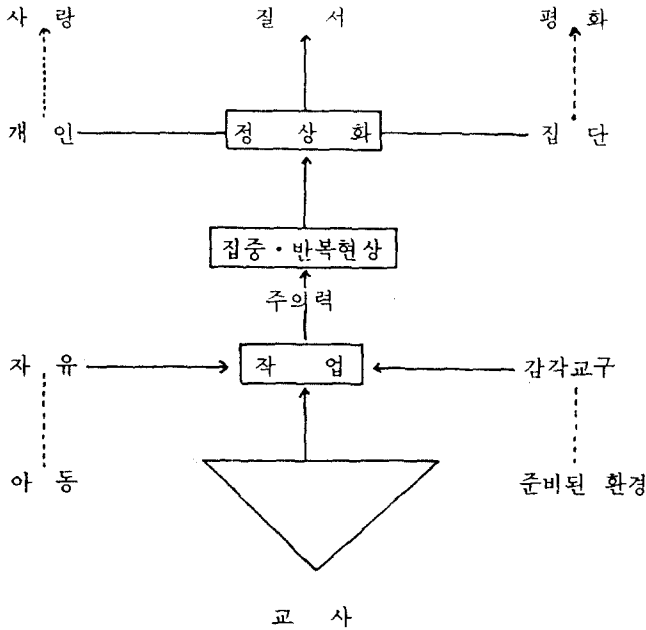
12) 박리라外 6人, 前揭書

13) 김한선, 前揭書, p.129.

14) 김한선, 上揭書, p.127.

15) 이상금, Montessori 敎育法의 現代的意義, 「논총」 제지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76, p.270.

이상에서 언급한바를 要約하면, 正常化란 兒童에게 가해진 生命의 抑壓으로 인하여 생긴 非正常的 特徵으로부터, 兒童의 內面에 잠재해 있는 본래 正常的인 性質을 發見하여 兒童으로 하여금「精神의 統一」狀態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兒童은 스스로 幸福함을 느끼고, 他人을 理解하고 도우며, 社會生活에 適應할 수 있는 人格과 能力을 갖추는 것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아동의 정상화 과정

### Ⅲ. 몬테소리 教育에서 正常화를 위한 基本原則

#### 1. 自由

몬테소리 教育에서 自由(freedom)의 의미를 올바르게 理解하는 것은 그녀의 兒童에 대한 尊敬心과 의도하는 教育의 참뜻을 바르게 案内하는 길이된다. 여기에서 自由란 一般的인 自由의 概念과는 다르며, 아동의 全人的인 發達에 매우 필요한 條件인 것이다.<sup>16)</sup>

兒童은 出生前에 이미 精神發達의 實體로서 精神的 胎芽(spiritual embryo)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精神發達을 이끌어가는 基本型이다.<sup>17)</sup>

註16) Helen F. Robison. Exploring Teaching Ina Early Childhood Education. (Allyn and Bacon Inc., 1977) p. 137.

17) P.P. Lillard. Montessori A modern Approach (New York ; Schocken Books Inc., 1972) p. 30.

이러한 精神的 胎芽는 일정한 發達過程을 통해서만이 나타나게 된다. 만일 이때 人爲的인 外部압력이나 強要는 兒童의 發達에 아무 도움이 안될뿐더러 오히려 妨害를 할 것이며 중요한것은 단지 環境과 自由의 原理라는 두가지 條件이 있을뿐이다.<sup>18)</sup>

前者인 環境은 몬테소리 教育方法에 있어서 제1의 要素이다. 環境은 兒童을 길러내는 育成地로서 兒童에게 行動의 自由를 주어 兒童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學習할 수 있는 環境을 찾도록 成長에 필요하게 마련하여 주는 것을 意味한다. 그리하여 兒童은 保護되고 活動할 수 있는 自由가 주어지게 된다.

몬테소리 教育은 「教育에 있어서의 自由의 研究」라고 할 수 있을만큼 그 出發點이나 基盤, 그리고 최종적인 目標도 生命의 약동이 해방을 받지 않는 自由로운 어린이의 存在<sup>19)</sup>에 두고 있음은 이를 잘 證明해 준다.

이러한 點에서 볼 때 몬테소리는 傳統的인 權利와 Herbert 教育學은 아동의 欲求를 무시하는 中世的인 것이라며 이에 反對되는 立場을 취했다<sup>20)</sup>는 것을 이해할만 하다. 生物學的 見地로부터 아동에게 있어서 自由의 概念이란 生理學的인 面과 心理學的 發達에 까지 가장 유리한 條件으로서 理解되어져야 한다.<sup>21)</sup>

兒童의 生活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各各의 兒童에게 있어서 特別한 삶인 重要한 어떤 것이다. 거기에는 단 하나의 살아있는 個個人的 生物學的 表現만이 있는 것이다. 兒童은 成長하는 身體와 發達하는 精神을 가진다. 그러므로 兒童을 外的으로 無秩序한 行動 즉 目的없는 活動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正常的인 發達을 妨害하는 障害로 부터 그의 生活이 自由롭도록 理解되어야 한다.<sup>22)</sup>

따라서 兒童의 自由란 早期時期부터 숨겨진 欲求를 完全히 파악하여서 이에 障害를 주는 要素를 가능한한 除去시키는데 놓여 있다. 그리하여 兒童의 自發的인 行動은 完全한 自由에 一致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sup>23)</sup>

몬테소리는 自由에 기초를 둔 教育은 다음의 두가지 일을 目標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24)</sup>

첫째는 兒童이 自由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이는 人間觀에 目標를 둔 것이다. 즉 兒童은 自然이 준 生命의 法則, 生命의 衝動에 따라서 사는 自由가 完全히 보장 되었을때에만 環境속에서의 經驗을 통하여 自立하고 獨立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아동이 自發的으로 自己를 나타내는 것을 制限하는 구속에서 해방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註 18) P. P. Lillard, 前掲書, pp.30~31.

19) 김한선 편저, 몬테소리 教育(理論編), 보육사, 1979.p.89.

20) David Elhind, "Piaget and Montessori", Havard Education Review, Vol.37, 1967, p.537.

21) M. Montessori, The Absorbent Mind, Trans. Claude A. Claremont, (New York: Dell Publishing Co., 1967), p.205.

22) M. Montessori: The Discovery of the child, (New York; Ballantine Books, 1967), p.62.

23) John, J. McDermott, Maria Montessori Spontaneous Activity in Education (New York; Schocken Books Inc., 1965), p.71.

24) 김한선, 上掲書, p.83.

는 教育方法論에 目標을 둔 것이다. 즉 아동의 自發的인 活動이 抑壓당하거나 간섭을 받지않고 自由롭게 活動함으로써 兒童은 그 自身을 꾸밈없이 나타내야 하고 教師는 그 兒童의 살아있는 생기있는 모습, 즉 活動을 觀察해야 하는 것이 그녀 教育學의 기초인 것이다. 그러나 生命力이 自發的으로 발로 되는 것을 抑壓당한 兒童은 결코 自己의 참된 모습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教師는 아동의 참된 모습을 觀察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몬테소리 교실은 兒童에게 알맞은 環境을 準備해주고 적절한 自由, 즉 制限된 自由를 부여해야 한다.<sup>25)</sup>

이는 教室에 있어서의 秩序의 必要性을 理解한 것이며, 個人의 自由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의 自由에 관련되어야 하며 그것에 의해 制限<sup>26)</sup> 됨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自己教育을 實現할 수 있음을 意味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教育學的 立場에서 보면 自由란 肉體와 精神의 최선의 發育을 위해 적당한 條件 즉 環境속에 兒童을 놓아두며, 正常的인 發育을 妨害하는 障礙에서 兒童의 生活를 해방시키고, 兒童이 成長하기 위한 努力을 할 때 이를 돕는것<sup>27)</sup> 이라고 몬테소리는 말한다.

兒童이 自由로이 活動하도록 開放된 곳에서는 아동 自身이 스스로를 訓練할 수 있으며 한 成人으로서 形成되어질 수 있는 곳이다.<sup>28)</sup> 이러한 開放된 공간은 兒童으로 하여금 自由롭게 움직이고, 달리고, 뛰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sup>29)</sup> 이와같이 兒童이 그의 活動을 訓練하기 위하여 自由롭게 되면 그의 環境속에서 自由法則에 의해서 스스로 發達하고 있는 그 內的 組織에 直接關係 되어 組織된 어떤것을 兒童의 주변 세계에서 찾게된다. 이는 마치 “자유로운 곤충이 형태와 자양물간의 직접적인 조화를 꽃들의 형태와 성질 속에서 찾듯이”라고 몬테소리는 表現하고 있다.<sup>30)</sup>

그러나 自由란 兒童이 그가 원하는 것에 편안히 위치하는 것을 意味하지만은 않는다. 지나치게 풍부한 것은 發展을 弱화시키며 遲滯한다고 여러번 說明된 바 있다.<sup>31)</sup>

따라서 分明하게 定義된 自由의 限界는 自由와 放從사이에 성립되어 졌다.<sup>32)</sup> 즉 自由는 멋대로 하는 放生の 意味를 가진 自由는 아니며 만일 放任해서는 절대로 참된 의미의 自由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몬테소리는 1948年에 급속하게 변하는 文化 속에서 兒童에게 더욱더 自由를 주도록 부모들에게 強要했다. 成熟하고 自信있는 父母만이 그의 子女를 진정한 自由의 發達을 위해서 必要한 案內와 制限을 이끌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自由가 최소한의 義務와 責任에 있다는 成人의 생각은

註 25) M. Montessori. 上揭書, 1967. p.206

26) R. C. Orem, A Montessori Handbook (New York ; G.P. Putnams Sons, 1966) .p.32.

27) 김한선, 前揭書, p. 85

28) M. Montessori, Spontaneous Activity in Education(Cambridge ; Robert Bentely, Inc., 1971) . p. 151.

29) 上揭書, p. 148

30) 上揭書, p. 70.

31) R. C. Orem, ed, 前揭書, p. 79

32) 上揭書, p. 71.

잘못된 것이며, 兒童에게 주어진 自由는 父母와 教師로 부터 解放도 아니요 自然이나 國家社會의 法則으로 부터 自由도 아니며, 바로 진정한 自由는 社會에 봉사하는데 적합한 최대한의 自己發達 (self-development) 이나 自己實現 (self-realization) 을 위한 自由이다.<sup>33)</sup>

몬테소리 教育의 目的인 이러한 自由가 주어질때 아동의 正常化, 즉 「새로운 兒童」이 發見 될 것이다.

## 2. 注意力的 發達 및 現象

몬테소리는 兒童의 自由를 尊重하며 직접 觀察한 결과 兒童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內面形成의 法則」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兒童이 그 發達의 일정한 段階에서 전에는 보지 못한 특별한 關心을 가지고 자신이 속한 環境의 어떤 對象物에 注意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일이다.<sup>34)</sup>

중요하게 생각되는 어떤 對象이 아동의 全人格 (the child's whole personality)에 관계될 만한 그런 關心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sup>35)</sup>

따라서 兒童은 精神的 成長에 유리한 環境에 놓여지면 兒童은 한 對象에 注意力을 集中시키며, 그 注意力을 조직적 目的을 위해서 性用하며 끝없이 똑같은 練習을 反復하게 된다. 이와같은 現象은 精神的 成長과 관계가 있는 시초라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出發點인 것이며, 行動의 自由가 이 時點부터 人格을 가지고 發展해 가는 그러한 출발점이다.

兒童의 注意力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바로 兒童의 原始的 內的 衝動이며 거의 精神的 空腹感 (sense of spiritual hunger)에서다. 그리고 이러한 精神的 空腹感을 充足시키기 위하여 兒童의 意識을 일정한 對象쪽으로 이끌어서 原始的이지만 複雜하고 反復的인 知的 訓練을 하게 된다.<sup>36)</sup> 몬테소리는 이를 敏感期 時期에 나타나는 독특한 現象이라고 한다. 敏感期の 生命에 衝動으로 말미암아 兒童이 內的 興味에 맞는 外的 環境을 提供받으면 兒童은 外的 事物에 대하여 강한 反應을 나타내고 精神集中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sup>37)</sup> 그래서 集中能力 形成을 위한 前段階이기도 한 注意力의 힘을 몬테소리는 매우 重要하게 強調하고 있다.

가장 현대적 학파인 唯心論的 心理學者, Willam James<sup>38)</sup> 도 注意力의 共存物에는 生命의 신비로운 因子인 精神的인 힘 (spiritual force)이라는 本性이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므로써 몬테소리와 의견을 같이 했다.

兒童이 즐겁게 연습하며 똑같은 과업을 오랫동안 전념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發達의 「內的知覺」이다.<sup>39)</sup>

註 33) P. P. Lillard, 前掲書, 1972. p. 119.

34) P. Lillard, 上掲書, p. 39.

35) Montessori, 前掲書, 1967. p. 206

36) Montessori, 1971, p. 68.

37) Montessori, 1973, p. 32.

38) Montessori, 1971, p. 160

39) 上掲書, p. 154.

지금까지 모든 心理學者들은 「注意力の 不安定」을 3~4세 兒童의 特徵이라고 했다. 아동들이 보는 모든 것에 매혹되어서 이 物體에서 다른 物體로 바뀌가며 어느 하나에도 集中할 수 없고 兒童들의 注意를 集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로 인하여 이들을 教育하는데 障礙物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유란 아동의 注意力の 現象을 研究하기 위한 實驗的 條件이다. 嬰兒의 注意力を 자극하는 것은 주로 感覺器官인데 이 감각기관내에서 강력한 心理學的 調節作用을 가진다.

調節作用이라는 것은 心理學的으로 어린 아동에게는 安定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自然(nature)에 따라서 發達시키는 것이 必要하다.<sup>40)</sup>

어린이의 注意力은 教師에 의해서 人爲的으로 유지될 수 없다. 注意力을 고정시키는 것은 어떤 對象이다. 注意力은 모든것이 無關心하게 쏠리는 것이 아니라 兒童의 意圖에 맞게 쏠린다.

兒童은 그가 이미 自己마음속에 품고있는 對象들이거나, 그가 지난날 성취했던 對象들에 精神을 集中한다.

그 이유는, 이미 아동에 의해 征服된 것은 自己마음속에 남아 있어 생각을 집착시키려는 傾向이 있기 때문이다.<sup>41)</sup>

이와같은 경외로운 注意力을 自發的으로 習得하는 能力은 意志, 判斷, 性格의 形成過程에 중요한 根本이 된다.<sup>42)</sup> 그러므로 이러한 能力을 向上시키도록 教育的인 배려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몬테소리는 이러한 能力을 兒童 스스로가 發達시키기 위해서는 兒童의 內的發端(internal origin)에 精神力이 作用하여서 이루어 짐을 指摘하고 있다.

이는 마치 포화용액 상태에서 한점의 결정체가 形成이 되어서, 結晶體周邊에 無秩序와 統一을 이루어 훌륭한 形態의 結晶을 이루는 것과 같은 現象이다.<sup>43)</sup>

### 3. 集中과 反復現象

몬테소리의 보고에서 분명히 밝혀 준 것은 知性을 核心으로 한 生命이 運動을 通하여「肉體化」되고 그 生命이 「集中」을 통하여 「正常化」된다는 것이다.

生命은 知性을 근本으로 하며 運動하면서 環境을 肉體化한다. 다음에 環境에 있어서의 經驗이 可能하게 되어, 環境에 全人格的으로 作用하는 活動이 일어나면 이에 集中이 생기게 된다. 注意力の 集中은 生理的으로나 心理的인 기능에 調和를 가져오며 欲望을 統一하고 精神이 지향하는 方向을 올바르게 찾아 人格全體가 正常化된다고<sup>44)</sup> 했다.

이와같은 아동의 正常化 原理에 따라 아동 스스로가 正常化하는 內面過程을 具體的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0) 上揭書. p.157.

41) Montessori, Education For a New World. Adyar, Madras 20. India. Kalakshetra pub. 1959. p.71.

42) Montessori. 前揭書. 1971. p.155.

43) 上揭書. p.68.

44) 김한선, 前揭書, p.136.



兒童들은 그들의 놀이나 作業活動에서 어떤 外部의 刺戟이나 강요 없이도, 內的인 生命의 힘에 의하여 外的 對象들에 대한 集中을 일으키며, 이에 따른 反復現象이 나타난다.

몬테소리는 「어린이의 집」에서 우연하게 觀察하게 된 약 3세된 女兒가 한셋트의 손잡이 원통 작업에 매우 熱中하여 거듭해서 反復함<sup>45)</sup>을 보았다. 이때 몬테소리는 集中現象에 대한 영감을 받았으며 후일 몬테소리 教育理論과 方法을 體系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兒童의 注意集中을 통한 反復行動은 自然的 現象으로서 精神力을 좌우하는 重要的 基本行動이며 아동 內面과정에 올바른 規律이 形成되도록 한다. 이러한 兒童은 獨自的으로 作業을 하며 마치 그의 人格의 發達처럼 일에 열중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어린이가 도덕적 고립(moral isolation)인 것은 아니며 그와 반대로 아동간의 相互尊重과 愛情을 가지며, 분리대신 統合된 기분을 갖게 된다.<sup>46)</sup>

그러므로 아동에게 있어서 참된 規律의 모습은 自由로운 作業을 통한 集中으로부터 나타나며 規律이란 外部에서 강요되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分명한 事實에 비추어 볼 때, 注意集中力과 規律이 전혀없는 兒童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대단한 관심을 自發的으로 불러 일으키는 對象을 가지고 作業을 계속하도록 自由롭게, 그리고 個人으로서 尊重된다면 마침내는 精神을 集中하여 熱誠을 가지게 된다.<sup>47)</sup>

이와같은 事實은 새로운 機能을 暴發的인 힘으로 나타내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反復現象은 아동의 知的發達에 도움을 주며 特定한 行動과 技術을 더욱 잘 받아 들일 수가 있게 만든다.<sup>48)</sup>

反復行動이란 成人에게는 무의미하고 지루함을 느끼는 現象이나 兒童에게는 成人과는 다른 獨特하게 일어나는 現象이다. 成人은 어떠한 行爲를 하는데 그 結果를 重要하게 생각하지만 兒童은 현재 行하고 있는 作業行爲自體가 所重하며 즐길 수 있는 對象이다. 즉 作業自體가 結果이다. 또한 이 作業을 통해서 아동은 個性의 탄생(birth of individuality)을 이룬다고 Miss George가 관찰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sup>49)</sup>

“3세와 5세인 두 자매가 있었다. 3세女兒는 5세된 언니의 行動을 항상 正確하게 模倣을 하기 때문에 한 個人으로서 存在한다고 말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예를 들면, 언니가 파란 연필을 가졌으면 3세女兒는 그 파란연필을 가질때까지는 기쁘지 않았고, 또 언니가 버터바른 빵을 먹으면 역시 그 버터빵만을 잠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어느날 3세女兒가 분홍색 탐에 흥미를 갖고 여러번의 되풀이를 하는 동안은 언니의 存在를 완전히 잊을 수 있었다.”

이와같은 作業의 集中을 통하여 3세女兒는 個性을 갖고 獨自的인 發達로 더이상 언니의 模倣이나 反影을 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나 兒童들의 作業活動은 하루동안 固定된 것은 아니며 時間의 變化에 따라서 作業에도 변화가 있다는 것을 Signorina Maccheroni<sup>50)</sup>는 兒童들의 하루의 作業活動곡선으로 要約하고 있다.

註 45) Montessori, 前掲書, 1971, p. 67.

46) Montessori, 上掲書, p.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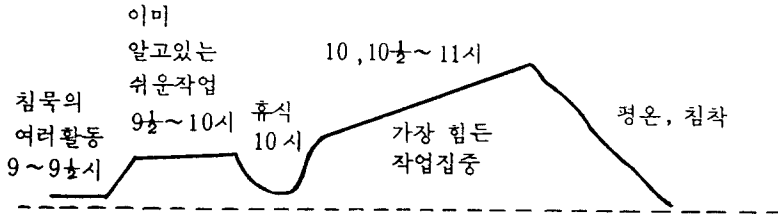
47) 김한선, 前掲書, p. 97.

48) P. P. Lillard, 前掲書, p. 32.

49) Montessori, 前掲書, 1971, p. 92.

50) 上掲書, p. 98.

(그림 2 참조). 아동들은 아침 첫 시간부터 10 시경까지는 一般적으로 쉽고도 익숙한 작업을 선택하며, 오전 10時가 되면 매우 동요된 기분으로 不安해져서 作業도 중지하고 놀이감도 찾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잠시후에는 이 학급에 가장 완전한 秩序가 일어나고 아동들은 작업에 깊이 沒頭하게 된다. 그리고 作業活動은 새롭고 더욱 어려운 일을 選擇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作業이 끝날때는 兒童들의 표정은 온화하고 평온하며 행복한 표정이었다.



<그림 2> 하루의 작업활동에서 정상화

이상에서 언급한 보기들은 모두 正常化한 아동의 경우이다. 이들은 科學적으로 準備된 環境에서 아동의 內的 및 外的 에너지를 통한 풍부한 活動에 集中함으로써 나타난 現象이다.<sup>51)</sup>

만일 이때 無經驗의 教師가 兒童들의 作業活動中에 잠시 있는 10時的 휴식시간(false fatigue)을 兒童들의 中斷現象이나 無秩序로 잘못 알고는 兒童들을 불러서 安定할 것을 介入한다면, 兒童들의 不安은 지속되며 최고 正常 作業을 향한 準備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은 非正常 狀態로 남아있게 되고<sup>52)</sup> 注意가 산만해지며 無秩序하게 된다. 無秩序는 兒童發達에 많은 害를 가져오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Miss Dufresue<sup>53)</sup>는 “4살세된 男兒가 매우 신경질적이며 침착하지 못하였고 全 兒童들을 妨害했는데 그의 精神이 이러한 無秩序한 狀態에서는 어떤 正確한 行動도 遂行할 수가 없었다. 즉 단 하나의 간단한 단추도 못잡겼다.”고 지적했다.

이는 바로 秩序의 原理가 우선된 후,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이미지를 모으고, 作業이 진행된다는 過程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나 兒童이 일단 對象에 관심을 가지고 集中하게 되면 無秩序와 精神의 不安은 사라지고 대신 秩序感이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兒童이 集中現象을 통해 평온한 상태(正常化)에 이르게 되면 秩序의 영원한 상태

註 51) E. M. Standing. Maria Montessori ; Her life and Work. (New York ; A Mentor omega Rooks. 1969) p. 175.

52) Montessori ; 前掲書, 1971. p.99.

53) E. M. Standing. Maria Montessori ; Her life and Work. 全英順譯 (서울 ; 牧羊出版社 1979). p.9.

가 그의 마음속에 形成되어진다.<sup>54)</sup>

아동들은 하루의 作業이나 놀이에 대한 주기(cycle)가 있으며 이를 妨礙받게 되면 規則적이고도 完全하게 遂行되는 內面過程(internal process)과 관련된 모든 特性을 잃어버리게 된다.<sup>55)</sup> 즉, 흥미를 상실하게 된다.

兒童이 作業에 흥미를 가지거나 스스로를 發展시킬때 끊임없이 일어나는 現象은 생기있는 기쁨(lively joy)이다.

心理學者들은 이 기쁨을 知的인 習得에 일치하는 感覺的인 特徵(sentimental note)이라고 한다. 또한 生理學者는 기쁨에 대한 正確한 比較로서 體重의 증가가 身體的 發達을 나타내는 것처럼 기쁨은 內的 成長의 表示라고 했다.

兒童은 스스로 精神的 成長(spiritual growth)의 感覺을 가지고 있으며 獲得의 意識(a consciousness of the acquisitions)이 있어 이는 兒童自身的 性格의 폭을 넓히도록 만든다.<sup>56)</sup>

그러하여 그 結果 全人格者로서의 그 基盤을 점차 構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몬테소리 教育의 體系는 外部의 作用인 教育學的 技述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生物처럼 調和된 신비로운 內面作用에 의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全體로써 形成되어<sup>57)</sup> 있음을 周知하고, 實踐에 옮길때만 그 結果, 正常化한 兒童은 탄생될 것이다.

#### IV. 結 論

本 研究에서는 몬테소리 教育目標인 「兒童의 正常化」에 關心을 가지고 正常化의 現象과 過程에 관한 要因을 文獻을 中心으로 考察하였다.

兒童의 正常化란 非正常兒를 正常兒로 變化시키는 것이 아니라 自己內部에 潛在해 있던 正常的인 性質이 나타나서 새로운 型의 어린이가 表面化되는 것이라고 定義할 수 있다.

새로운 어린이, 즉 正常化한 兒童을 發見하는데는 教育的 基本段階가 先行條件으로서 兒童의 內面과 外的行動에서 必須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그 基本原則으로서 自由와 注意力의 發達 및 現象 그리고 集中·反復現象을 中心으로 正常化를 이루는 過程을 다음과 같이 要約한다.

첫째, 自由의 原理이다. 몬테소리 教育의 自由는 一般的인 自由의 概念과는 差異있는 것으로 兒童의 全人的인 發達에 알맞는 條件을 意味한다. 결코 放任된 無절제가 아니고 準備된 環境속에서, 制限된 自由이다.

이와같이 적당한 環境속의 자유야 말로 참된 意味의 自由이다. 그럴때만이 아동 스스로가 自發的인 活動을 통하여 自己를 나타낼 수 있다.

註 54) Montessori, 前掲書, 1971, p.95.

55) 上掲書, p.96.

56) 上掲書, pp.92 ~ 93.

57) E. M. Standing, 前掲書, 1969, p.475.

둘째는 注意力的 發達 및 現象이다. 주의력을 일으키는 것은 兒童의 原始的·內的 衝動이며 精神的 空腹感이다. 아동은 精神的 空腹感을 充足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對象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知能의 反復의 練習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對象에 대한 注意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에 알맞게 自由가 우선되어야 하며, 準備된 環境과 教具가 提供되어야 한다.

세째는 集中과 反復現象을 통한 아동의 正常化이다. 아동이 한 對象에 대한 注意力이 나타나면, 그 對象에 대하여 集中하고 反復하는 現象을 보인다. 兒童의 集中現象을 통한 反復은 自然的 現象이며, 精神力을 左右하는 重要的 基本行動이다. 또한 反復은 아동 內部에 올바른 規律을 形成케 하고, 知的 發達을 가져온다.

다시 말하건, 集中과 反復行動을 통해서 아동은 生理的인 機能에 調和를 가져오고, 欲望을 統一하며, 精神이 指向하는 方向을 올바로 찾게된다. 그러면 人格全體가 “正常化”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正常化한 아동의 特徵은 모든 일에 침착하며 평온한 마음을 갖는다. 그리고 항상 自信感이 넘쳐 흐르고 每事에 正直하며, 規律을 잘 지키게 된다. 어떠한 일이나 認耐力이 있고 自由를 올바르게 行事할 줄 아는 能力을 또한 갖는 어린아이다. 그뿐만 아니라 他人에게도 역시 사랑을 베풀 줄 알며 理解할 줄 아는 社會的 感情을 所有하게 된다. 이상의 特性들은 兒童을 幸福되게 할 뿐만 아니라 全人的인 人格發達에도 도움이 크다.

## 참 고 문 헌

- 김한선, 몬테소리教育理論편. 서울:보육사, 1979.
- 박리라外 6人, 운현몬테소리 교육과정. 서울:예쁜 튼튼사, 1984.
- 신기철·신용철, 새우리말큰사전. 서울:삼성출판사, 1978.
- 愼鏞日, 教育心理學. 서울:載東文化社, 1971.
- 李基淑, 幼兒教育過程. 서울:教文社, 1982.
- 이상금, Montessori 教育法의 現代的意義. 「논총」제 21 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76.
- Elkind, D. Piaget and montessori. *Havard Educational Review*, 1967, 37.
- Kilpatrick, W.H. *The Montessori system examin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14.
- Lillard, P.P. *Montessori a modern approach*. New York: Schocken Books Inc., 1972.
- McDermott, J. J. *Maria Montessori spontaneous activity in education*. New York: Schoc-ken Books Inc., 1965.
- Montessori, M. *Education for a new world*. Adyar, Madras: Kalakshetra Pub., 1959.
- Montessori, M. *The absorbent mind*. Trans, Claude A. Claremont, New York: Dell Publishing Co., 1967.
- Montessori, M. *The Discovery of the child*. New York: Ballantine Books, 1967.
- Montessori, M. *Spontaneous activity in education*. Cambridge: Robert Bentely Inc., 1971.

Orem, R.C. *A Montessori handbook*. New York : G.P. Putnam's Sons, 1966.

Robison, H.F. *Exploring teaching in a early childhood education*. Allyn and Bacon Inc., 1977.

Spodek, B. *Early childhood education*.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3.

Standing, E.M. *Maria Montessori: Her life and work*. New York: A Mentor Omega Books 1969.